

8월의 기도

공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1.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 세상의 지혜를 찾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3.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4.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인석, 이태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희망을 붙잡고 전진하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희망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젊었을 때, 하루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세우고 누군가가 수레를 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레를 밀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와서 함께 수레를 밀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을지라도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린다. 여리고 성을 돌아야 성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우리가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닷길도 열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내일에 다가올 희망을 즐기차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ugust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1년 해외성회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성회·가나성회



▲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궁에서 바그보 대통령과 함께 기도하는 조용기 목사



▲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FHB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조용기목사 초청 코트디부아르 성회'



▲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는 조용기목사



▲ 가나 독립광장을 메운 '조용기목사 초청 가나 성회'

DCEM은 2001년 서방국가 선교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을 심는데 주력했다. 미국 달라스성회를 시작으로 펼쳐진 DCEM 선교사역은 미국 워싱턴, LA, 요르단, 아프리카, 일본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깃발을 휘날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심없는 경주를 계속한 조용기 목사는 2001년 8월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대성회를 인도했다. 각각 연인원 10만명 참석한 이 성회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심어준 성회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성회에 참석, 그 의미를 더해 주었다.

◎...2001년 8월에 개최된 조용기 목사 초청 아프리카 대성회는, 24~25일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 FHB 스타디움에 이어

28~30일 서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각각 연인원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유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국가적인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코트디부아르 복음주의 연합회가 3년전부터 준비해 주관한 코트디부아르성회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결신하고 병고침을 받았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사회적 변명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새로운 영적 갱신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코트디부아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조목사의 설교에 화답하며 환호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코트디부아르 집회를 마치고 가나로 이동, 가나 국립스타디움에서 3일간 복음전도집회를 계속했다. 가나 카리스마틱교회협의회(NACCC) 주관으로 오전에는 세미나가 저녁에는 독립광

장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회복을 위한 회개와 믿음을 가질 것과 가나의 상황을 한국의 6.25 전쟁 이후의 상황으로 빗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 것을 촉구했다.

◎...조목사는 바그보 대통령(코트디부아르)과 쿠퍼 대통령(가나)의 초청을 받아 각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러한 국가 원수의 환대는, 가나로 이동하는 비행기의 갑작스런 결항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자 바그보 대통령의 대통령 특별기의 호의로 이어졌고 무사히 가나로 이동하여 집회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성회기간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국영TV 및 일간신문들은 '조용기 목사 코트디부아르를 위해 축복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2장1~5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이곳은 영적인 세계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다녀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이 생겨라.” 말씀하시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갈라지면서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푸른 하늘이 생겨난 것입니다.

### 1.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지구 사이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 마귀의 종이 되자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협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배후의 세력으로서 보이는 세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 2. 마귀가 배후에서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조종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와 마음에 탐욕을 넣어주었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하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하와와 마음에 탐욕을 넣어서 하와가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도 마귀가 배후에서 그 마음에 시기심을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이 동생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마귀가 그 배후의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

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소스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도록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병을 덮어씌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그 증거를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강하게 결심하고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면 생활에 저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식, 저주의식, 궁핍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면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남미에서 성회를 인도할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어린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어머니가, 뱃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기가 배안 태에서 죽었어요. 의사가 맥박도 들리지 않고 죽었으니 빨리 수술해야 엄마가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죽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교회 성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배 안에서 갑자기 어린 아기가 살아나서 발로 엄마 배를 찔렀습니다. 아기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끝없이 눈물이 나고, 나는 그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었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 대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 3.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대적해야 합니다. 40일 금식 이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마 4:7)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절하라고 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과 같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구멍으로 향소바람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귀의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허락하면, 그리로 마귀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삶 전체를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에도 힘씀으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라면, 방어용 무기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과 낙심을 주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그 탄식이 무엇이나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배후의 힘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배후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와 발자취(5)

## 서울에서 제주까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국내 선교 사역 중 특히 영남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성회를 인도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1980년 6월 진주 경남학생체육관에서 진주 지역복음화대성회, 1990년 마산실내체육관에서 경남 기독교 청장년 연합회 주최로 열린 경남 복음화대성회, 1991년에는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성시화 성회, 1999년에는 안동 경안고등학교에서 열린 <99 경북 북부지역 연합 부흥회>등이 있다. 2004년 4월 통영시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성회는 통영 사상 가장 큰 성회로 기록됐다.

조용기 목사는 1983년과 1997년 그리고 2004년 목포를 방문하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1997년 ‘목포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 진행된 성회는 30개 교단과 650여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사명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목포시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KBS 스포츠홀에서 열린 2004년 11월 성회는 주춤했던 목포지역 교회들에

게 지역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10월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주최로 열린 성회는 광주시 목회자들과 1만여 명의 성도들이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가 영적 각성의 용광로를 방불케 했다. 이 외에도 조용기 목사는 1985년과 1992년 전주에서, 1990년 4월에는 여수를 중심으로 순천, 광양 등 전남 지역 2만명이 참석한 전남동부 지역 복음화대성회 강사로 나서 지역 복음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충청권에서는 1986년 청주복음화대성회와 1992년 천안시 복음화 대성회, 1993년 엑스포 93 세계선교협의회 주최로 열린 대전 복음화연합대성회가 있었다. 또 2005년 9월 29, 30일에는 ‘2005 제천성시화대성회’ 주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160여 교회가 연합해 진행된 제천성회는 제천에 복음이 전래된 이래 맞이한 첫 대규모 집회였고 FGTV가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2006년 7월 서산시 복음화 대성회는 집중호우에도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인

성령축제였다.

경기권에서는 1985년 11월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회가 열렸으며, 1997년 9월에는 춘천 공직전 야외음악당에서 춘천시민을 위한 대성회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또한 2002년 10월에는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성령의 바람은 제주에도 불었다. 1987년 8월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주교회 연합 복음화 대성회를 인도한 조용기 목사는 2003년 한라체육관에서 열린<2003 제주 복음화선교대회>에서도 1만여 성도에게 “꿈과 비전을 품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용기 목사가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일으킨 순복음의 성령 바람은 한국 교회가 100만 성도에서 1200만 성도로 성장하는 ‘부흥 한국’의 토대가 되었다.